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

김 광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조선혁명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호두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한 회의라고 할수 있다.》(《김일성전집》 제98권 249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카륜회의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창시와 주체적혁명로선, 선군혁명로선의 탄생을 선포한 회의였다면 남호두회의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 회의였다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5(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념안현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고수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세워가지고 투쟁하여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투쟁이 우여곡절과 좌절을 겪지 않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아무리 옳바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워가지고 투쟁한다고 해도 온갖 낡은 사상조류들과의 투쟁속에서 그것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면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없으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다른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해 투쟁하게 된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더욱 복잡성과 첨예성을 띠게 되였다.

만주땅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기 시작한 조건에서 조선혁명가들은 1930년대초부터 중국공산주의자들, 중국의 반일력량과 공동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면서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을 전진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혁명을 적극 도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국내인민들과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켜왔다. 이것은 조선혁명가들에게 부여된 웅대한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였다.

그러나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은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을 휘두르면서 조선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우는데 대하여 혁명가답지 않은 이단행위이며 비당적분파행위라고 걸고들었으며 동만에서 2 000여명의 조선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무참히 학살하였다. 결과 수많은 반일대중이 혁명대오에서 리탈하게 되였다.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숙반》운동으로 조선혁명가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힘들게 축성해놓은 우리 혁명의 기초가 거의나 허물어지게 되여 조선혁명은 막대한 손실

을 당하게 되었으며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반《민생단》투쟁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좌경적오류를 극복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주체성, 독자성을 옹호고수하고 주체적로선을 견지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조선혁명가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혁명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였다.

조선혁명앞에 부닥친 엄중한 위기와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생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매우 심각하고도 치열한 투쟁을 벌리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4(1935)년 2월 다홍왜회의에서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대사상전을 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배타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 그들의 터무니 없는 그릇된 주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었다.

다홍왜회의에서 시작된 론쟁은 그해 3월에 열린 요영구회의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다홍왜회의에서 민족배타주의자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요영구회의에서도 의견상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두 회의에서 제기된 조선혁명의 주체성에 대한 문제를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해 위증민과 윤병도를 모스크바에 보내기로 하였다.

국제당 7차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온 위증민은 남호두회의 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가들이 견지하고있는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과 로선들 그리고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들에서 논의되고 국제당에 제소한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오류에 대한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국제당이 표명한 견해와 지지를 통보하였다.

국제당의 이 통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지하여오신 조선혁명에 관한 자주로선의 승리에 대한 공식적인정이었고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여있던 난관의 제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수년간에 걸쳐 벌어져온 심각한 론난은 끝장나게 되고 민족배타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 승리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성과 주체로선이 확고히 견지되게 되었으며 조선혁명을 급속히 양양시킬수 있는 광활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 전반기에 조선혁명가들이 조선민족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려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비타협적이고도 치열한 투쟁을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선혁명가들이 견지하고있는 조선혁명에 대한 자주적립장과 주체적로선을 국제당이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는것과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조선혁명가들에게 부과된 응당한 권리이며 숭고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재삼 강조하시었다.

남호두회의는 이처럼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고수하고 민족배타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궁지높이 총화함으로써 항일혁명투쟁에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할수 있게 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는 다음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는 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함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국제무대에서는 도이칠란드, 이탈리아, 일본에서 파시즘이 대두하여 침략전쟁의 위험이 온 지구를 뒤덮고있었다. 특히 동방에서 일본은 1936년 2월 소장파군인들의 반란사건으로 온 렬도가 급속히 전쟁의 온상으로 전변되어갔다. 일본의 파쇼화는 식민지조선에 대한 폭압과 략탈을 미증유의 야만상태로 끌어갔고 《황국신민화》에 의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극도에 이르렀다. 이것으로 하여 어제날의 우국지사들은 일제와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동조동근》, 《내선일체》론에 합창하며 반역의 길을 걸었다.

실로 이 시기는 애국은 죽어가고 매국이 살판치는 세월이었으며 조선이 통채로 죽어가고있던 시기였다. 죽어가는 조선을 소생시켜야 하였으며 그러자면 조국에 나가 총소리를 울리어 좌절감에 사로잡혀있는 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이 질식되고있던 당시를 회고하시면서 조선이 죽어가고있다는 이 기막힌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백두산에 나가서 조선은 살아있다, 조선은 싸우고있다, 조선은 반드시 살아난다는것을 실증해주지 않으면 안될 가장 절박한 리유로 되고있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호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당시 조성된 정세에서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와 백두산지구으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으로 확대할데 대한 방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할데 대한 방침,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과 국내깊이으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며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조선혁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으로 나가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거기에서 의거하여 국경지대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활발히 벌린다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밑에서 신음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양양으로 이끌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판도에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쳐물리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백두산과 국내깊이에 진출하여 원썩들과의 결전을 벌리게 될 날을 눈앞에 그리며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서 제시된 방침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구호 《조국에 무보를 뺀치고 군호를 올리자!》를 높이 들고 보무당당히 조국으로 진군하게 되었다.

남호두회의에서는 이렇듯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롭고도 중요한 전략적방침들이 제시되고 토의되었으며 그것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항일혁명투쟁에서 주체를 완전히 확립할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남호두회의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혁명로선의 승리를 총화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남호두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남호두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와 1930년대 후반기를 구획짓는 조선혁명의 분수령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역사적인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은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